

2026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최영수 육군 대령,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 선정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최영수 육군 대령과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을 ‘2026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최영수 육군 대령〉 춘천을 지켜내고 압록강까지 진격한 지휘관

최영수 대령은 1945년 광복 후 가족과 함께 남하(南下)하여, 19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현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입교해 같은 해 12월 장교로 임관했다.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최영수 중령(당시 계급)은 제6사단 제7연대 부연대장이었다. 최영수 중령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자 연대의 화력 배치 임무를 맡아 제12중대의 81mm 박격포와 연대의 57mm 대전차포 등 당시로서는 넉넉하지 않았던 화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해 적을 타격했고, 춘천을 사흘간 지켜내는 데 기여했다.

이후 제7연대는 복진을 거듭해 1950년 10월 26일 압록강변까지 진출했다. 최영수 중령은 연대장의 위임을 받아 최전방까지 나아가 장병들을 격려했지만, 중공군이 기습 공격에 나서면서 제7연대는 온정리 일대에서 후방이 차단되고 포위망에 갇히는 위기를 맞았다. 최영수 중령은 뒤쳐진 부대를 재정비하던 중, 10월 30일 온정리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공격에 전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혁혁한 전공을 기려 대령으로 1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1950년 12월)을 추서했다.

□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 유엔군의 복진을 이끌다 산화한 지휘관

찰스 그린(Charles Green) 중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왕립 호주연대 제3대대 대대장으로 참전했다. 제3대대는 1950년 9월 부산에 상륙해 영연방 제27여단에 소속되어 북진에 나섰고, 개성과 사리원을 거쳐 10월 평양에

입성했다.

이후에도 북진을 거듭한 그린 중령은 1950년 10월 정주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또 한 번 승전을 거두며 아군의 진격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10월 30일, 정주 인근 달천강 주변에서 작전 수행 중 적군이 쏜 포탄의 파편에 중상을 입어 11월 1일 30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 대대를 강한 전투부대로 탈바꿈시킨 지휘관으로, 언제나 앞장서서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명령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유해는 재한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으며, 2023년에는 배우자도 남편의 묘소에 함께 안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19년 7월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 <끝>

	최영수 대한민국 육군 대령 (1917.01.20.~1950.10.30.) 충무무공훈장(1950.12.30.)
	찰스 그린 호주 육군 중령 (1919.12.26.~1950.11.01.) 을지무공훈장(2019.7.27.)

담당 부서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강성미	(044-202-5750)
		담당자	사무관	이영준	(044-202-5759)